



병꽃나무



최 명 섭
임업연구원

과명 : 인동과
학명 : *Weigela subsesilis*
영명 : Weigela
한명 : 高麗楊櫨
일명 : こうらいやぶうつぎ

꽃 모양이 병같이 생겼다가 하여 병꽃나무라고 불리고 있다. 이 나무는 우리 나라 어느 산야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데 어느 누구하나 관심을 갖지않는 등 싸리류와 같이 『無用之物의 雜木』 취급을 하고 있다. 꽃은 보는 사람에 따라 병같이 보이기도 하고 혹은 갈대기, 나팔등과 같이 보이기도 한다.

꽃의 색깔이 다양하고 토양이나 대기오염등에도 강한 수종이어서 사방지복구용이나 가정정원, 공원등에 식재할만 하다.

생태적 특징

전국 산야의 계곡과 산록에 진달래, 산철쭉, 국수나무, 철쭉과 함께 혼생하고 때로는 단순군락을 이루는 낙엽활엽관목으로 수고 2~3m정도 자란다. 내음성, 내한성이 강하여 숲속에서도 잘 번성하지만 때로는 임도를 개설한 곳이나 산지를 타용도로 변경하고자 상층목을 제거한곳에 무리지어 나타나기도 한다. 내건성이나 내조성은 보통이나 각종 공해나 대기오염에도 강하여 도시조경에도 적합하다.

번식 방법

밑에서부터 많은 줄기가 올라와 큰 포기를 이루며 줄기는 희백색이지만 얼룩무늬가 있다.

잎은 마주나고 타원형이며 길이 1~7cm, 넓이 1~5cm로서 작고 가는 톱니를 가진다. 꽃은 병을 거꾸로 세웠거나 또는 갈대기 모양으로 길이 3~4cm이고 끝은 5개로 갈라지며 5월에 피고 황녹색에서 적색으로 변한다. 열매는 삭과로서 잔털이 밀생하며 길이 1.0~1.5cm이고 9월에 익으며 종자에 날개가 있다.

국내의 병꽃류는 대개 8종 정도이며 붉은꽃이 피는 붉은병꽃나무(*W. florida*), 악편(萼片)이 매우 짧은것을 좀병꽃나무(*W. brevicartycina*), 화관(花冠)이 백색인것을 흰병꽃나무(*W. candida*), 잎의 양면에 털이 있고 꽃의 색깔이 진자주빛인 것을 소염도리(*W. praecox*), 화관외면에 털이 없고 관부 상반부



▲소염도리

는 점차 굵어지며 잎의 뒷면에 백색의 짧은털이 밀생하여 백색으로 보이는 것을 골병꽃나무(*W. hortensis*), 화관외면에 털이 있고 화주

(花柱)는 추출하며, 화관이 처음 백색이다가 후에 홍색으로 변하는 축자병꽃나무(W. japonica), 경남 통영군이 자생지로 악편(萼片)은 중간까지 갈라지고 열편은 퍼침형인것으 통영병꽃나무(W. toensis)라 한다.



찾는데 오랜 시일이걸리는 것이 보통이고 이런 절개지나 경사지등은 비가오면 홍수를 빚기 일쑤이며 토사유출은 더욱 환경을 황폐화시키므로 이런곳의 녹화복원용 지피식물로 병

◀ 병꽃나무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최근 몇년전 비무장지대 종합조사를 하기위해 백령도에 간적이 있었는데 여객선에서 내리자 마자 마을입구까지 도로변에 피어 있는 소영도리는 마치 손님을 맞이하기위해 식재한 것처럼 섬을 일주하는 도로에까지 섬 전체에 피어 있어 식물분류를 공부하는 본인외에도 함께 동행한 조사원 전체가 먼저 이름을 묻고 그 아름다움에 눈멀어 했던적이 있다. 병꽃나무류는 성질이 튼튼하여 척박한 토양이나 음지, 양지를 가

리지않고 토양도 또한 가리지 않고 잘 자라며 이식력 또한 좋아 야생의 병꽃나무를 그대로 가정정원이나 공원에 옮겨 심어도 활착율이 좋다.

꽃이 피는동안 3가지 색깔로 다양하게 변하고 꽃이 피는 기간이 길어 미국 등 외국에서도 훌륭한 관상수로 가꾸어 심고 있다.

병꽃나무 가정용 관상수 뿐만 아니라 도로건설 위성 도시건설 등의 절개지 복원녹화에도 적합한 나무이다. 자연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푸르름을 되

찾나무류는 가장 이상적인 사방용수라 할 수 있다.

4. 번식법

번식은 종자와 삽목으로 가능한데 종자번식은 9월에 잘익은 열매(蓇葖)를 채취하여 봄에 비닐하우스 같이 습도가 높은곳에 삶은 이끼를 잘게 썰어 폴파워박스에 깔고 종자를 뿌린다음 발아가 되어 어느정도 자라면 묘판에 이식한다.

꼭짓이는 봄에 싹트기전에 지난해 자란 가지를 10cm정도 길이로 잘라 꽃으면 된다. **조경수**